

분류사와 명사 의미 부류

최민우 강범모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minoo, bmkang}@korea.ac.kr

Minoo Choi Bum-mo Kang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요 약

국어에서는 어떠한 대상의 수량을 표현할 때 수사와 함께 분류사(classifier)를 사용한다. 따라서 분류사는 그 특성상 수량 표현 구문을 형성하는 대상 명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는데, 단순히 명사를 셈하는 것 뿐 아니라 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명세(specify)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사와 분류사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사의 사용에 따른 명사의 범주화 및 계층 구조를 보이고, 컴퓨터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그 관계를 좀더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전산어휘부(computational lexicon)의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1. 서론

국어에서는 어떠한 대상의 수량을 표현할 때 수사와 함께 분류사(classifier)를 사용한다. 분류사는 수사와 더불어 가산(countable) 또는 비가산(uncountable)명사를 셀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수량 표현 구문의 구성 요소는 대상 명사, 수사, 분류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분류사는 그 특성상 수량 표현 구문을 형성하는 대상 명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는데, 단순히 명사를 셈하는 것 뿐 아니라 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명세(specify)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장에서 분류사를 이용한 기본적인 수량 구문의 예를 몇 가지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분류사 구문의 예
가. 저기 학생 두 명이 간다.
나. 쌀 한 가마를 사 왔다.
다. 물 두 잔을 마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사와 분류사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사의 사용에 따른 명사의 범주화 및 계층 구조를 보임으로써 그 관계를 좀더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언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전산어휘부(computational lexicon)의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2. 분류사에 따른 대상 명사의 부류 설정

강범모(1999b)는 한국어 명사의 어휘 정보를 명세하는데 있어서 분류사 정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분류사의 정보를 의미 구조의 정보와 독립하여 나타내었다. 분류사 정보를 의미 구조의 정보에서 분리함으로써, 분류사의 의미적 역할이 표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분류사와 명사의 관계는 일종의 선택제한 관계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해결하고 있다(강범모 1999a). 한국어와 관련된 의미 유형의 설정 및 계층 구조의 설정에는 분류사의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명사와 분류사의 연결 관계는 사실상 일반화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정한 어휘와만 결합하는 경우, 어느 정도 개방적인 결합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짓기에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게다가 국어의 수량사구에서 분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명사에 따라서 어떠한 분류사와도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의 분류사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체계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사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고, 기존의 분류를 참고하여 목록을 설정하고 그 의미 부류를 보일 것이다.

3. 분류사와 명사의 계층구조

3.1 도량분류사

먼저, 도량을 나타내는 단위의 경우에는 보통 'mm', 'cm', 'm', 'km'와 같이 분명히 드러나는 계층이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대상이 되는 명사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단위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명사들은 분류사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길'이라는 명사에는 일반적으로 'mm' 또는 'cm' 등의 단위가 붙을 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분자', '원자'와 같은 단위에는 'kg', 'ton' 등의 단위가 붙을 수 없다. 따라서 도량을 나타내는 분류사들은 그것들이 나타내 주는 범위 안에서 명사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이처럼 도량형을 나타낼 수 있는 분류사와 결합 가능한 명사의 예를 몇 가지 들었다. 도량의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의 규격은 그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2) 도량 분류사에 의한 명사 부류의 예

(말뭉치에서 해당 분류사와 같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은 것들을 예로 들었음)

- mm - 두께, 직경, 틈
- cm - 길이, 폭
- m - 길이, 폭, 도로
- km - 거리, 둘레,
- mg - 물질, 질량, 시료
- g - 가루, 질량
- kg - 무게, 하중, 체중
- ton - 중량, 물량

이처럼 규격화된 도량 분류사에 결합하는 명사 어휘들은 비교적 분명한 위계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반드시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도량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분류사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컵, 양동이, 들통, 항아리, 드럼' 등의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떠한 액체를 담을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단위를 나타내는 도량형 분류사로 사용될 수 있다. ('물한 컵', '간장 한 항아리', '기름 한 드럼' 등) 이러한 도량 분류사들 또한 단위를 나타내는 도량 분류사와 같이 결합하는 명사들의 분류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컵' 같은 단위는 비교적 소량의 액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상 대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기름'과 같은 어휘와는 보통 잘 결합하지 않는다. 반대로 큰 용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드럼' 같은 경우는 소량이 비교적 의미가 있는 '식초', '참기름'과 같은 어휘들과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량 분류사의 특징은 첫째 비교적 그 계층이 분명하고, 둘째 분류사에 의해 나누어지는 명사의 층위 또한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으로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일반적인 분류사들과는 어느 정도 그 쓰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2 일반 분류사

윗절에서 살펴본 도량 분류사들과는 달리 일반 분류사는 그 위계 구조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그 분포 자체도 선형적이지 않고 평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위를 나타내는 도량 분류사 계열과 같은 명확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어의 특성상 상당히 독특하고 다양한 분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일관성 있는 하나의 계층 구조로 묶어서 제시할 수는 없다. 부록에서 제시될 분류사의 목록을 살펴 보더라도 단 하나의 명사와만 결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는 분류사의 수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명시적으로 계열화하기 힘든 분포를 보이는 분류사-명사 관계를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국어 사전에서 명사-분류사(단위 명사)의 목록을 추출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전에 제시된 표제어 속에서 명사와 그것을 셀 때 사용하는 분류사의 목록을 추출하여 이들 통한 명사의 계층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 이유로

는 수많은 텍스트 자료 중에서 분류사의 목록을 하나 하나 찾고 또 그를 기준으로 명사를 찾아내는 방식은 결과의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고, 게다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표현에 제한을 두고있는 사전의 항목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금성판국어 대사전(1991)을 사용하였다.

목록의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의 명사 항목에 보면 그 풀이말에 '세는 단위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표현 아래 나타나는 어휘들을 우선적으로 분류사로 설정하였다..

'책': (명) 1 (자립) ①사람의 사상, 감정을

세는 단위는 권, 부, 집, 책, 편, 질

'고등어': (명) 세는 단위는 마리, 손(2마리), 못(10마리).

위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책'이라는 명사의 '세는 단위는'는 '권', '부', '집'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위를 통해 대상 명사의 수량 구문을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분류사 항목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명사와, 그와 공기하는 분류사의 목록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목록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특정한 명사 표제어와 결합이 될 수 있는 분류사의 예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 예를 몇 가지 보인다.

(3) 추출된 명사-분류사 목록의 예

명사	분류사
감	개, 접(100개), 동(100접)
고사리	모습, 갓, 두름(10모습)
꽃감	개, 꼬치, 접(100개), 동(100접)
금	푼(1/10돈), 돈(쫑), 냥(쫑)(10돈), 쌈(100냥), 그람
꽃	포기, 송이, 떨기, 다발, 묶음
담배	개비, 대, 갑, 보루(10갑), 찜지,
딸나무	단, 못, 가리, 짐, 묶음
미역	뉘, 장, 못(10장), 춤, 꼭지
벼	단, 못, 짐, 가리, 섬, 담불(100섬)
복어	마리, 껍(20마리), 두름(20마리)
실	타래, 통구리, 꾸리, 토리, 울, 님, 테, 가닥, 오리,
바람	

엽전	푼(1/10돈), 돈, 냥(10돈), 뉘, 꾸러미, 껍(10꾸러미)
인삼	뿌리, 편(片), 돈, 근(斤), 채(100근)
조기	마리, 손(20마리), 갓, 못(10마리), 두름(20마리), 동(2,000마리)
종이	장, 매, 권, 축(軸), 동, 연(連)
채소	단, 다발, 묶음, 그램, 관
책	권, 부, 집, 책, 편, 질
필름	판, 통, 릴(reel), 권(卷)
화초	그루, 주, 포기, 떨기

하지만, 위에서 추출된 명사들은 전체 한국어 명사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사전에는 아주 일반적인 명사('개' 등)에 대해서는 분류사 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목록을 통해 분류사의 계층이 명사의 계층에 반영되는 것들을 선정하였다. 보통 분류사 계층의 최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와 같은 범용적인 분류사는 그것이 한정하는 명사의 부류가 거의 모든 명사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폭이 넓기 때문에, 특정한 명사-분류사 연결이 있다는 결과를 보이기 쉽다. 반대로 분류사 계층의 최하단, 즉 한 개의 명사와 한 개의 분류사만이 결합되는 경우 또한 명사의 계층 구조를 보이는 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분명하게 명사의 부류를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다.

먼저 '자루'를 보면 이 분류사는 '쟁이, 기관총, 낫, 도끼, 붓, 비, 삼, 양초, 연필, 총, 칼, 톱' 등의 명사와 결합된다. 이 중 '총, 양초, 삼, 기관총' 등의 명사는 또한 '정(挺)'이라는 분류사와 결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 '총, 양초, 삼, 기관총' 등의 명사들은 어떤 공통성을 띄는 부류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은 '빠다, 뽑다'의 의미를 띄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자루'가 붙을 수 있는 명사들과 그 중 '정'이 붙는 명사들간의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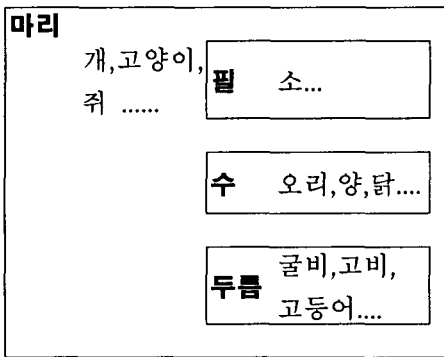
(4)

자루	
쟁이, 낫, 도끼	정 총, 양초, 삼, 기관총

동물을 지칭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분류사인 '마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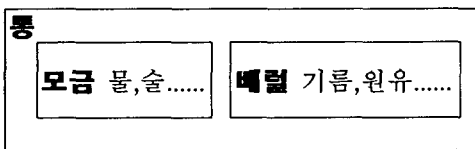
‘조기, 오징어, 오리, 양, 소, 생선, 비웃, 북어, 말, 동태, 닭, 낙지, 굴비, 고비, 고등어’등과 결합을 보인다. 이중 생선을 가리키는 명사들에는 일반적으로 ‘두름’과 같은 분류사가 결합 가능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 우리말에서 생선류에 대한 수량 표현은 상당히 다양하고, 특성화, 세분화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내기는 어렵다). 또한 ‘소, 말’과 같은 대표적인 가축들은 공통적으로 ‘필, 두’의 분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리, 양, 닭’과 같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가리키는 명사에는 ‘수(首)’라는 분류사가 사용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5)



‘물’과 ‘기름’은 모두 액체이지만 ‘물 한 모금’이 ‘기름 한 모금’보다 자연스럽게 ‘기름 한 배럴’이 ‘물 한 배럴’보다 자연스럽게. 따라서 액체를 계량하는 단위로서의 분류사는 ‘통’이 좀더 일반적임을 알 수 있고, 그 하위에 ‘모금’, ‘배럴’ 등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6)



이처럼 분류사와의 결합 관계를 통한 명사의 부류 설정의 예를 몇 가지 보았다. 거의 모든 명사와 결합 가능한 분류사에서부터 쓰임이 매우 한정적인 분류사까지의 계층을 제한적이나마 보였고, 이를 통하여 분류사와의 결합에 따른 명사의 부류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체계를 좀더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

의 명사와 분류사의 결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사전에서 분류사의 목록을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의존명사이면서 ‘세는 단위’ 또는 ‘단위’라는 표현이 들어간 항목을 찾아보면 다음 예와 같이 분류사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권[卷] (명) (의존) ①책을 세는 단위. ②
③한지 20장을 한 묶음으로 하는 단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서 추출된 분류사의 목록을 부록2에 제시하였다.

4. 말뭉치를 이용한 분석

이러한 분류사를 통한 명사의 부류 설정을 실제 대용량의 말뭉치를 가지고 검8중해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코퍼스는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KOREA-1 Corpus: 김홍규, 강범모, 1996)을 사용하였다.¹⁾ 계량적인 방법으로 의미 부류와 계층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추출된 분류사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선정하여 대용량의 말뭉치에서 명사-분류사 관계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분류사가 들어 있는 용례를 추출하여 추출된 용례 자료를 가지고 그 중 해당 어휘가 분류사로 사용된 수량 표현 구문을 추려내었다. 그리고, 그 수량 표현에 나타나는 선행 명사의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용량의 자료에서 용례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나타나는 선행 명사의 수도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추출된 명사-분류사 목록을 가지고 두 어휘가 동시에 나타나는 수량 표현 구문을 찾아 전체에서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10)에서 제시된 ‘자루’와 ‘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루’와 ‘정’의 용례를 찾아서 일일이 그 쓰임을 찾기에는 ‘자루’와 ‘정’과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은 그 둘과 결합 가능한 선행 명사를 몇 가지 선정하여 그 선행 명사가 분류사와 같이 나타나는 예문을 찾아, 그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위의 예에서는

1) KOREA-1은 형태소 주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형태소 부착 말뭉치를 사용한다면 용례 추출 후 해당 품사에 해당하는 결과만을 골라내는 후처리 작업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총’이라는 선행명사를 기준으로 삼아 ‘총’과 ‘자루’ 그리고 ‘총’과 ‘정’이 나타나는 용례를 각각 추출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자루’의 용례에서 ‘자루’가 분류사이고, ‘총’이 선행명사로서 수량 표현을 구성하는 예문의 비율은 약 28% 정도였다. 반면에 ‘정’에서 ‘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체 말뭉치 자료의 수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루’의 용례가 ‘정’의 용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기준이 되는 선행 명사를 ‘총’에서 ‘낫’ 또는 ‘도끼’ 등으로 바꾼 후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분류사 ‘정’은 ‘낫’이나 ‘도끼’등의 선행 명사와의 결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분류사 ‘자루’는 선행 명사 ‘총’, ‘낫’, ‘도끼’ 등과의 결합이 모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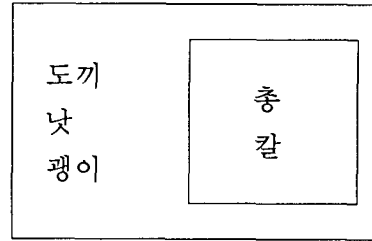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루’와 ‘정’은 분류사로 사용되는데, 전체 말뭉치 자료 중에서 ‘자루’의 비율이 ‘정’의 비율에 비해서 그 분포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루’와 결합할 수 있는 선행 명사의 수가 ‘정’과 결합할 수 있는 선행 명사의 수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 둘째, ‘정’과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자루’와도 결합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자루’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과의 결합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자루’라는 분류사와 ‘정’이라는 분류사 간에는 명백히 드러나는 위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분포 및 그것과 결합하여 수량구문을 이루는 선행 명사의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루’가 ‘정’보다는 위계상에서 상위에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그와 결합되는 명사간에도 어떠한 계층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루’와 결합이 가능한 명사군 중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빠다, 뽑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명사들은 분류사 ‘정’과의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명사 또한 어떠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분류사의 위계



(8) 분류사에 따른 명사의 구조



분류사와 결합하는 선행 명사의 위계는 분류사와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음의 표는 말뭉치에서 위의 분류사들이 각각의 명사들과 결합하는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9)

분류사 명사	정	자루
총	81%	28%
삼	1%	3%
양초	2%	10%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이 분류사로 사용된 경우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81%를 ‘총’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로서, ‘정’은 그 쓰임이 거의 ‘총’과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삼’이나 ‘양초’와 같은 명사들은 비록 ‘정’과 결합이 가능하고, 실제 그러한 용례가 나타나기는 하나, 그 비율이 매우 적고, 대부분 ‘자루’와 결합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은 ‘정’과 많이 결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자루’와의 결합 빈도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자루’의 전체 분류사 용법으로 쓰인 용례 중에서 ‘총’과 결합하는 부분이 28%로서 다른 용례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이러한 긴 모양과 도구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부류의 명사들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류사는 ‘자루’로서 거의 모든 명사가 이와 결합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분류사의 계층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쓰임에 있어서 하나의 분류사가 다른 분류사의 쓰임을 압도하고 있어서 그 부류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분류사의 쓰임은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명사의 계층 또한 그 존재를 알 수는 있으나,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써, 동물을 지칭할 때 쓰이는 분류사들을 들 수 있다. ‘마리’는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분류사로서 일반적으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선을 가리키는 명사들에는 ‘두름’과 같은 분류사가 사용될 수 있다. 또, ‘소, 말’과 같은 가축들에 사용되는 ‘필, 두, 수’ 등의 분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선행 명사를 사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명사를 각각 ‘굴비, 오리, 소’로 정하고 각각의 명사들이 ‘마리, 필, 수, 두름’의 분류사의 용례에서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0)

명사 \ 분류사	마리	필	수	두름
굴비	0.4 %	0%	0%	34%
오리	4.6 %	0%	2.1%	0%
소	13.5%	3.4%	0%	0%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분류사 ‘마리’의 쓰임은 거의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명사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굴비, 오리, 소’와 각각 결합되어 쓰이는 예문이 모두 일정 비율이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분류사 ‘필’, ‘수’, ‘두름’ 등은 ‘굴비’, ‘오리’, ‘소’ 등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는 특정 선행 명사와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함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연관성을 지니지 못한 선행 명사와의 결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소’나 ‘오리’는 좀 다른 경우인데, ‘필’ 또는 ‘수’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마리’와 가장 많이 결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류사-명사 결합의 분포가 일정한 계층 구조를 이루며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며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실제 사용에 있어 명사에 따라 좀더 특수한 것(‘두름’)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 더 일반적인 것(‘마리’)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명사와 분류사의 쓰임을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부류를 통틀어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분류사가 계층의 상위에 존재하고, 그 하위에는 의미적, 유형적 특징에 따라서 세분화된 분류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류로서는 특정한 하나의 분류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사의 쓰임은 한정적으로 특정한 명사에만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분류사와 결합되는 명사들 또한 동일한 속성을 가진 그룹을 형성함을 볼 수 있었고, 그를 기준으로 하여 명사들간의 계층 구조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분류사의 계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명사들 또한 그 구조를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분류사의 분포	상하위 관계가 분명	대표적인 분류사가 많이 쓰임
명사의 계층구조	드러남	나타나지 않음
분류사의 예	장, 매	자루, 정

이상으로, 말뭉치 분석 결과로 목록에 제시된 명사-분류사의 분포를 통해서 특정 명사-분류사의 상관 관계를 찾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사-분류사의 관계를 통한 명사의 의미부류를 제시한 본 장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말뭉치 분석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위의 분석에서는 특정 항목에서 제시된 어휘가 사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또, 개념적으로는 결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사-분류사 관계가 분석 결과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에 사용된 말뭉치처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르별로 안배가 된 균형 말뭉치를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로 구성된 말뭉치가 좀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이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료의 후처리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류사와 명사간의 상호 관계와 그 계층 구조를 고찰해 보았다. 기존의 명사 의미 분류가 주로 그 의미나 쓰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반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명사 외적 요소인 분류사를 통해서 명사의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분류사의 분포가 수직적으로 분명하게 위계를 이루고 있다기 보다는 수평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명시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 구조와 분류를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적절한 예를 제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 결과로 제시된 명사의 의미 부류 또한 상당히 단편적이고, 평면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좀더 보완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분명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서 ‘한 줄기 빛’, ‘한 바탕의 풍파’ 등과 같은 은유적 표현으로 구성된 분류사 구문에서의 대상 명사의 부류 설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추상 명사의 개념이 분류사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여부와 의미 부류 설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범모 (1999a), “양화 의미: 복수, 물질, 타입,” 강범모 외 현대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3장.
 [2] 강범모 (1999b), “어휘 의미 정보의 구조와 표상 - 한국어 명사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
 [3] 김홍규·강범모 (1996), “고려대학교 말모듬 1: 설계 및 구성,”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4] 우형식 (1997), “국어 분류사의 의미 범주화 분석,”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 박이정출판사.
 [5] 채완 (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6]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 (1998·1999), 문화관광부
 [7] 금성판 국어 대사전 (1991), 서울: 금성출판사.
 [8] Allan, K. (1977), “Classifiers,” Language 53-2.
 [9] Kang, Beom-mo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0]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Oh, Sang-ryong (1994), Korean Numeral Classifiers: Semantics and Universals, Seoul: Thaeaksa.